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2020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2020

ANNUAL REPORT 2020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C O N T E N T S

Hi KAWF

- 4 재단 소개
비전 및 미션
- 5 연혁
- 6 조직
조직 및 부서별 업무내용
- 7 이사회
- 8 예산 현황

Highlights 2020

- 9 사업 성과
2020년도 주요 성과
- 11 창작역량 강화
- 12 직업역량 강화
- 14 불공정관행 개선
- 18 사회안전망 구축
- 22 예술활동증명
- 24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발 행 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 행 인 정희섭
편 집 인 정철
기 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
디 자 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www.kawf.kr
주 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 화 02 3668 0200

재단 소개

설립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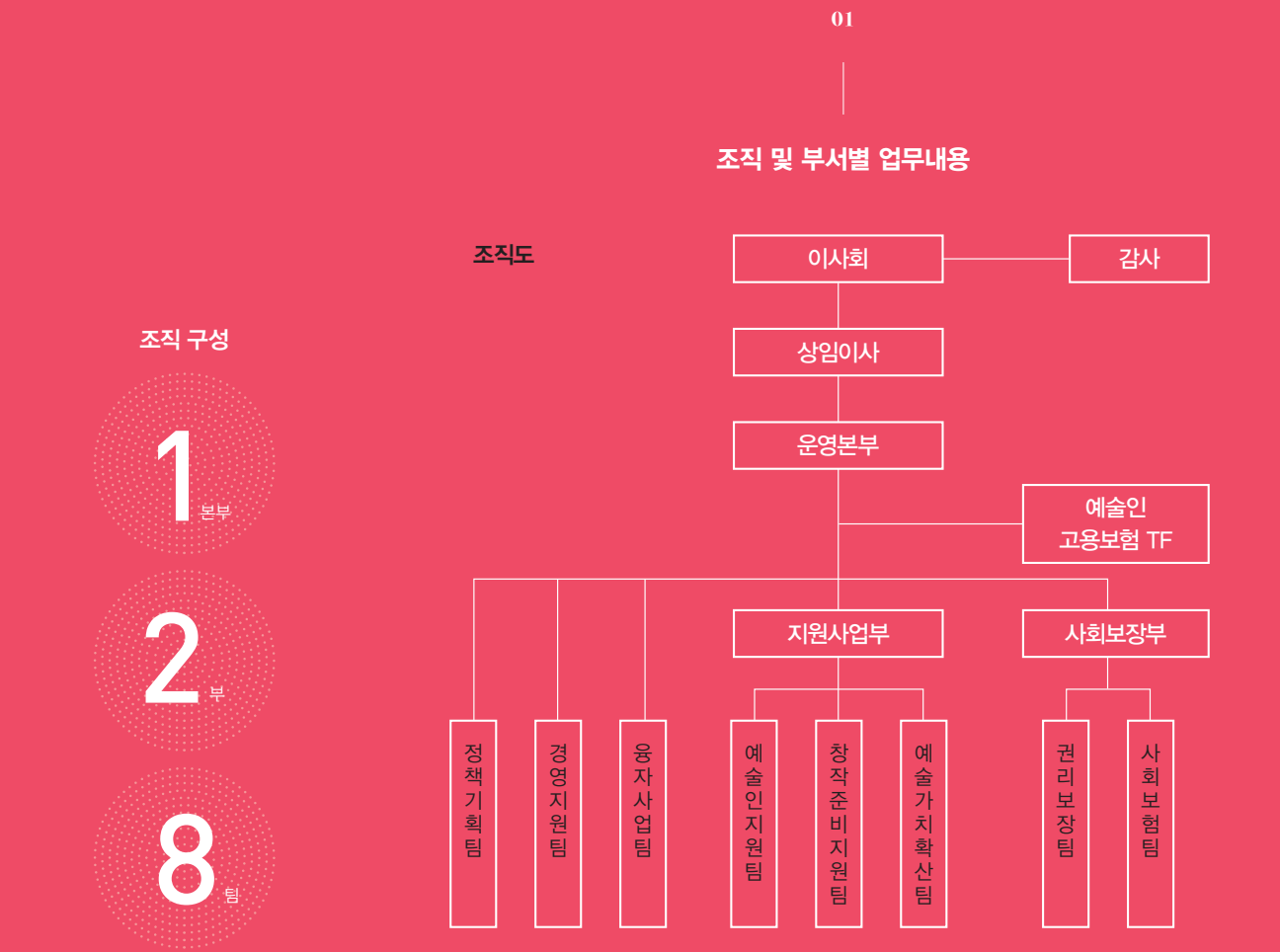
주요 기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활동에 전념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하고, 예술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02	연혁
2011	11. 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11. 18 11. 19	예술인 복지법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제1대 이사장 김주영 취임 제1대 상임이사 심재찬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2013	03. 05 09. 30 12. 10	창작준비금(디딤돌) 사업 시행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01. 28 02. 24 03. 27 03. 31 04. 15 05. 14 06. 19 10. 22 12. 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개설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대한법률구조공단) 반디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제2대 상임이사 박계배 취임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2015	01. 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6	02. 11 02. 15 09. 21 11. 25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관 제2대 이사장 이문열 취임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0.12 기준 총 19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12.30 시행)
2017	03. 14 12. 28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시간제 보육지원) 개소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2018	02. 23 06. 20 06. 27 10. 24	제3대 상임이사 정희섭 취임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개소 제3대 이사장 윤영달 취임 예술인복지금고 설립추진위원회 출범
2019	06. 24 08. 26 11. 18	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시범사업 시작 예술인복지위원회 출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출범
2020	03. 01 05. 27 12. 10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재직증명 인정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개설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재단 소개



부서별 업무내용

팀명	부서 업무
정책기획팀	1 경영기획 및 평가분석 2 홍보 3 국회 및 대외 업무 4 조사·연구 5 기타 정책 사업
경영지원팀	1 주요 업무계획 수립 2 예산편성·기획·관리, 계약 3 자체감사 4 이사회 운영지원 5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관리 6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 7 인사·노무·직원교육·근태관리 8 회계·총무 9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10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
용자사업팀	예술인금고(예술인생활안정자금(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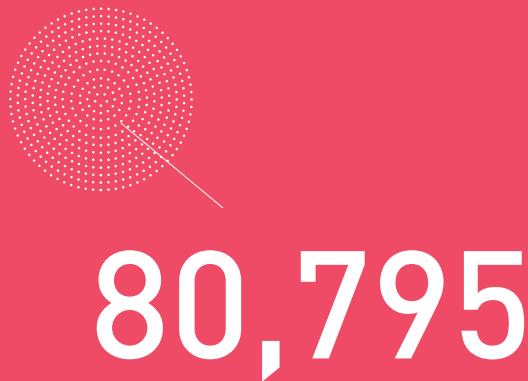
팀명	부서 업무
지원사업부	예술인지원팀 1 예술활동증명 지원 2 재단 사업 안내 및 응대 3 예술인패스 4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 창작준비지원팀 1 위기 예술인 지원 2 원로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예술가치확산팀 1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2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회보장부	권리보장팀 1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2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3 불공정 행위 상담 신고 접수 및 소송 지원 4 상담·컨설팅 지원 등 5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사회보험팀 1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2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3 의료비 지원



예산 현황

2020년 예결산 현황

세입



80,795

국고보조금

61,467

체육진흥기금

225

문예진흥기금

19,000

기타

103

2020년 세입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	결산
합계	80,795	80,795
정부지원	61,467	61,173
국고보조금	61,467	61,173
체육진흥기금	225	138
문예진흥기금	19,000	18,752
기타	103	732

2020년 세출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	결산
합계	80,795	80,795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지원	2,612	2,591
인건비	1,805	1,805
경상비	807	786
직업역량강화	8,571	8,501
창작역량강화	47,089	47,052
불공정관행개선 지원	2,195	2,041
사회보험가입	1,000	988
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225	138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19,000	18,752
기타	103	732

사업 성과

2020년도 주요 성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함께했습니다

2020년,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재난으로부터 예술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존 사업의 조정 및 확대를 통해 신속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추경예산을 확보(3차 추경, 98억 원)하여 당초 12,000명 규모이던 지원대상을 15,26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배점기준에 코로나19 피해 가점(2점)을 추가 적용하여 코로나 피해 예술인을 지원, 총 3,737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응자)

3월부터 예술인 (소액)생활안정자금 신청 요건 중 '코로나19 특별응자'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 연기되거나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안정자금 대출(5백만 원 한도)보다 높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특별응자로 총 1,090명에게 7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지역 협력사업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하여 부산/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북 총 10개 지역 예술인 316명을 대상으로 8개 지역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였습니다. (707명 대상 8억 7,62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간 납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자 13개, 예술인 99명)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을 개정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취소된 예술활동도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성과

2020년도 주요 성과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신청서류 간소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사업의 규모가 전년도 5,500명에서 15,260명으로 지원대상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축소하여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참여가 간편해졌습니다.

예술인 학부모 어린이집 신청시 재직증명 대신 예술활동증명으로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20년 기준 3월 기준 연장반) 신청 및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여부 확인 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확대

2020년도는 예술인 권익보호에 있어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재단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뮤지컬 〈친정엄마〉피해예술인이 소액체당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체가 폐업하는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게 되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으나 예술인 신문고의 적극적 대응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실효성을 갖게 됨에 따라, 5월에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재단은 신고접수뿐 아니라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자문, 관련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단을 통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예술인 법률 컨설턴트를 전년도의 8명에서 20명으로 증원, 더 꼼꼼한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 진행으로 강화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창작역량 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술활동을 준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대표사업입니다.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많은 예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북돋우고 창작안전을 구축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총 36,798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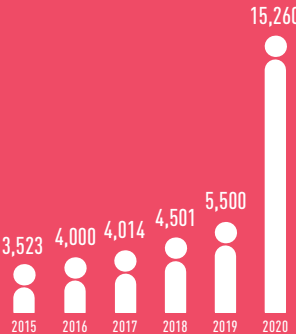
2020년도는 예술인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원 해소를 통해 예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둔 해였습니다. 신청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원서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줄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심의기간도 5개월에서 3개월로 크게 줄였습니다. 지원결정 후 2주 내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결정과 동시에 지원금을 지급, 신속하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창작안정망 강화를 위해 원로예술인, 장애예술인의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선정하는 우선 선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75%에서 120%로 확대 적용하여 지원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가구원의 기준도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로 완화하여 연락이 끊긴 부모, 자녀로 인해 사업수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을 통해 3,260명을 추가지원할 수 있는 9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특별 가점제도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3,737명을 포함하여 총 15,260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지원금

3,000,000 원

2020년 누적인원

36,798 명



사업 성과

직업역량 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성과

직업역량 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예술인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 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돌봄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지원합니다.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예술인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 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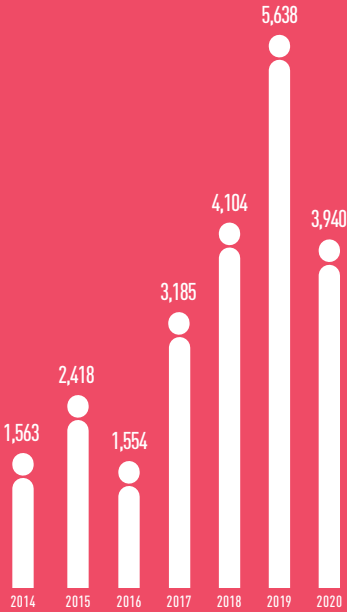
코로나19 '심각' 단계 중 임시휴관 기간 동안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정상 이용 기간 중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예약 및 외부인 출입통제, 출입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사용, 식사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돌봄센터

2 개소

2020년 누적인원

22,402 명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불공정관행 개선’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은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 예술인 신문고 |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해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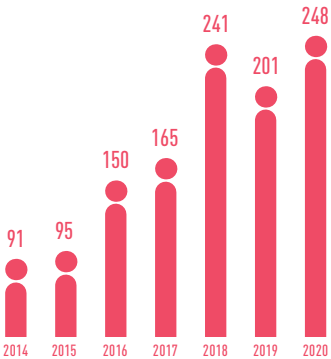
2020년에는 사례비 미지급, 불공정 계약 등 예술인 복지법상 불공정행위 248건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외부 컨설턴트 변호사 인력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연간 총 801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온라인, 전화, 대면상담).

또한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어 문체부에 서면계약 조사권이 생김에 따라 재단 내에 서면계약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계약서 미체결에 대해 신고를 받아 예술계 무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서 사전검토, 불공정계약 여부 검토 등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수동적인 처리가 아닌, 예술인 입장에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제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로 보호가 어려웠던 미지급 피해 예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소액채당금 제도와 연계, 3월에 예술인 최초로 채당금을 받은 사례가 나타났고 2020년 한 해 재단의 채당금 사건 처리로 피해구제가 된 예술인은 102명, 보전된 피해액은 총 1.72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예술인 신문고 누적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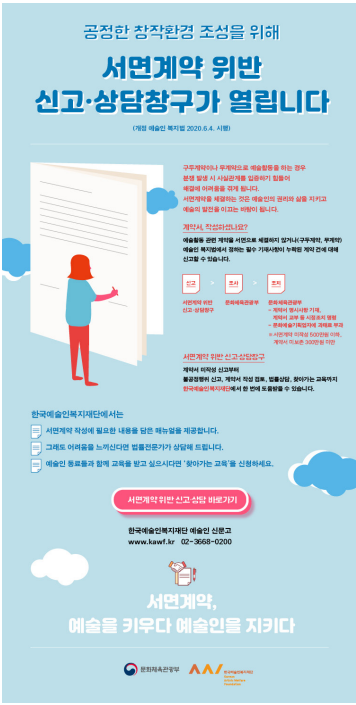
1,191 건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지원’은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업)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과 연계한 ‘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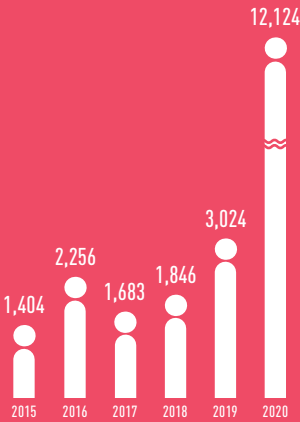
2020년에는 교육대상을 기존의 현업예술인과 예비예술인에서 사업주(문화예술기획업자)로 확대하여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특히나 예술인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 5차시로 구성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강화를 개발하여 보급, 많은 예술인들의 호응을 받아 총 12,124명의 예술인이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예술인이 보다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전문화사인 모두싸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 참여 누적 인원

22,337 명

교육 참여 인원 ▶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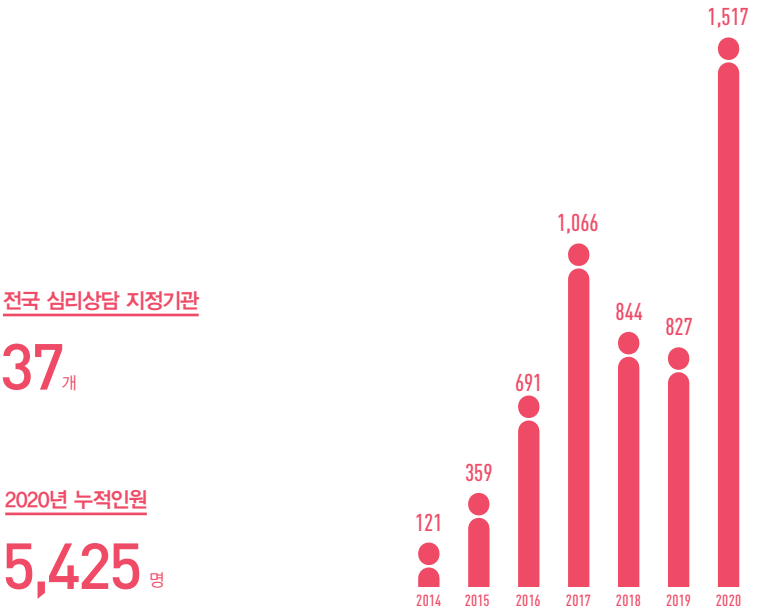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

한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의 55%가 코로나우울(Corona Blue) 증상을 호소했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예술인의 마음건강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단은 예산증액 및 예산변경 등을 통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한국심리학회 코로나 19 무료심리상담 연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예술인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울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리방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2020년 한 해 총 1,517명의 예술인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예술인은 전국 37개 지정기관(2020년 기준)에서 공인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심리검사 및 최대 12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재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 심리상담을 종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그룹 집단상담을 운영하여 예술인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작품 활동 중에 있는 예술단체에 집단 심리상담 및 자기이해를 위한 심리교육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건강하게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 모델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양혜원 외(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270.

사업 성과

불공정관행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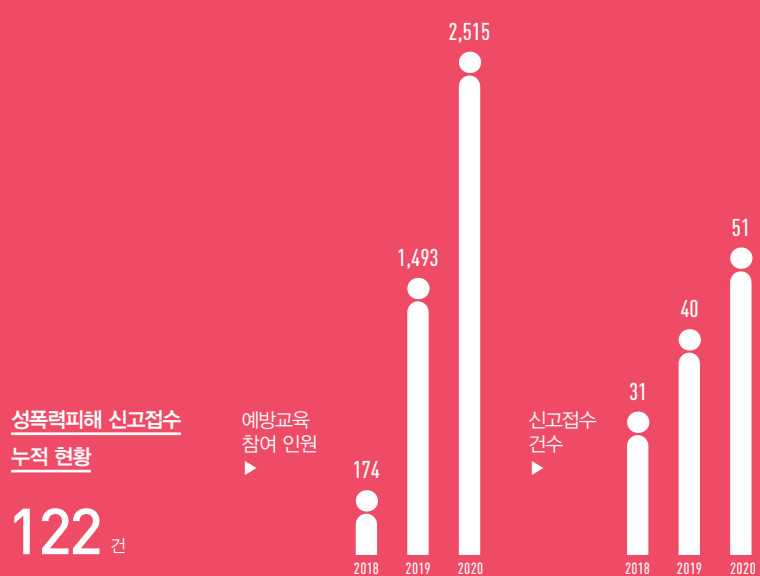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

'예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은 미투 운동으로 대두된 예술계 내의 성폭력 문제 개선을 위해 성폭력 피해 예술인의 위기상황 대처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통해 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8년 6월 20일 예술인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총 15명의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예술계 내 피해자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관련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외에 예술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한해 총 77회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여 2,515명의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들이 참여하였고,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지원을 통해 15명의 강사가 새롭게 위촉되어 예술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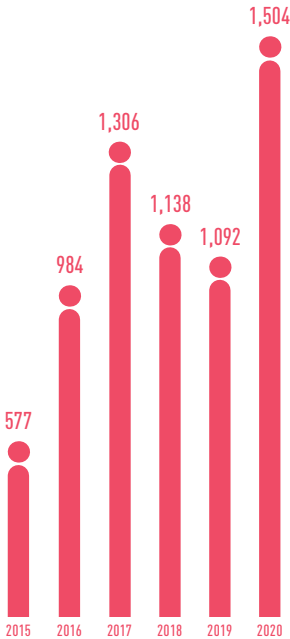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

사회보험 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도 활짝 열려 있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 체결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확산해왔습니다.

표준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80%를 지원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특별지원율(80%)을 신설하고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예술인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0년 누적인원

6,601명



사업 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그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과 창작의 잠깐멈춤이라는 어려움에까지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집단 실업의 위기 속에서 다행히 2020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예술활동이 없는 실업기간과 출산기간 중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것은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연구용역, 예술계 의견수렴, 부처 간 협의 등에 참여하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드디어 2020년 6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로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우선, 예술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용역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해 계약의 상대방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당연가입 방식으로 도입이 되었고, 프랑스로 공연, 영상 등 일부분 야만 가입하는 것이 아닌 문학, 미술 등을 포함한 전분야의 예술인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절차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며, 재단은 고용보험 제도가 예술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용보험 전담부서로 예술인고용보험TF를 신설하였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안내 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안내를 위해 문화재단 등 예술계 종사자와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관계성립여건 개선 협의체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참여하는 '피보험자격판단협의회'를 설치하여 예술분야 종사자의 다양한 활동 특성이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경과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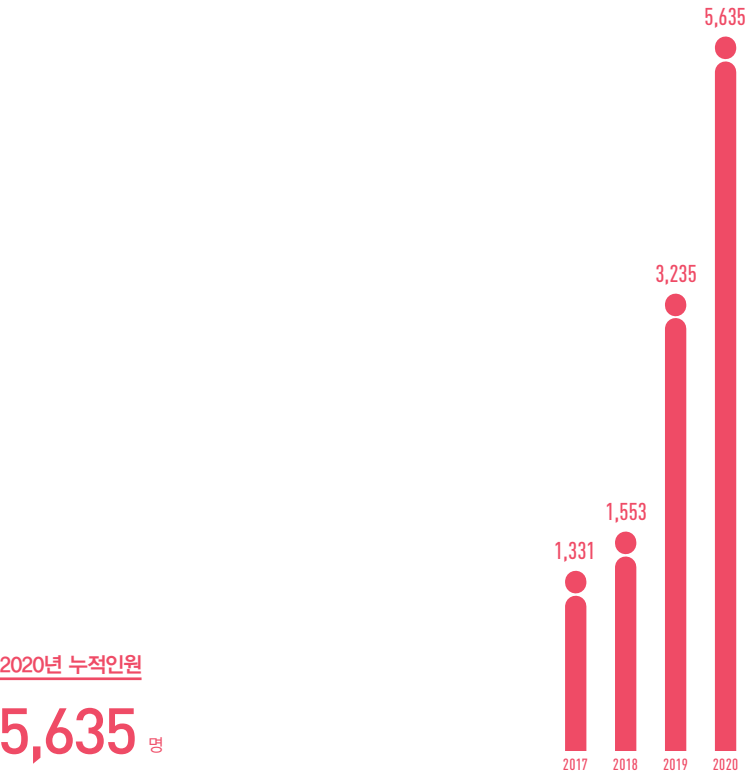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직업 예술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대행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를 50~90% 지원하며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2,400명의 신규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5,635명의 예술인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2013년부터 8년간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8년간 시행된 의료비 지원금 예산은 총 8억 7,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총 281명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거주지역별 보유자산이 기준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분야별 지원현황 통계

단위 : 명



사업 성과

예술활동증명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최근 일정기간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수입 내용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에 대한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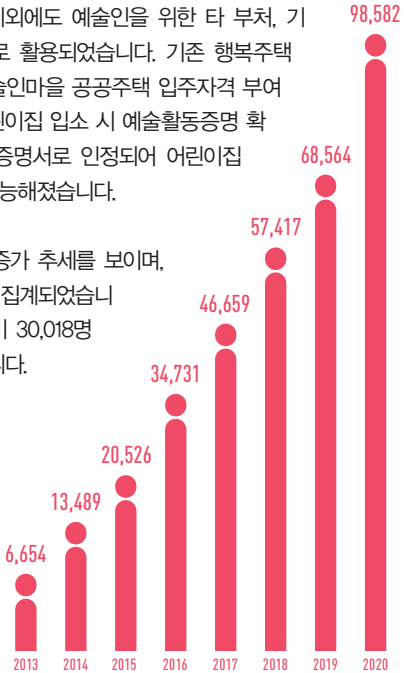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전시 등의 예술활동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수입 실적 제출에 어려움과 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재단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취소된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이외에도 예술인을 위한 타 부처, 기관,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 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 활용되던 것뿐 아니라 예술인마을 공공주택 입주자격 부여에도 활용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 입소 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부모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적용 및 종일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98,5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간 새롭게 신청하여 완료한 인원이 30,01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0년 누적인원

98,582 명



사업 성과

예술활동증명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예술인패스

| 예술인패스 |

2016년 2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인패스사업’을 이관 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 욕을 고취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 모바일페이지(first.kawfartist.kr) 일원화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예술인패스 홈페이지(<http://artpass.kawf.kr:9090/>) 통합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술인패스 누적 발급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의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4.7%가 증가한 26,305명이 새롭게 예술인패스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박물관, 공연장 등 제휴처 75곳을 추가로 확보하여 2020년도에는 총 570개소에서 예술인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성과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ART-LOAN

예술인은 프리랜서 비율이 76%로 높고 (2018 예술인 실태조사) 소득이 불안정해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예술인의 생활기반 마련과 창작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기를 위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어 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총 3,486명에 달합니다. (소액)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학자금, 결혼비용, 긴급 생활자금 등의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연 2.2%의 낮은 이율로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긴급자금을 제공하며 수혜자는 총 2,331명입니다.

3월부터 (소액)생활안정자금 신청 요건 중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취소, 연기되거나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에게 1.2%의 이율로 최대 1천만 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융자를 받은 예술인은 총 1,090명에 달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 및 창작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 65명의 예술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였고, 최대 한도를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7%로 생활안정자금대출보다 낮으며 임대차 계약은 동일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교육을 통해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융자의 필수사항으로 '금융교육 이수' 요건을 두었고, 이와 별도로 총 3편의 예술인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1편 대출관리, 2편 신용관리, 3편 재무관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단위 : 명



전세자금대출

단위 : 명



코로나19 특별융자

단위 :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언제나 예술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처럼,
예술인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 늘 함께하겠습니다.